

## 국어[한문 포함]

## &lt;총 평&gt;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연도				
2019년	5(↓4)	9(↑3)	4(↑1)	2
2018년	9	6	3	2

2019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은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유형은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올해 대세를 보였던 비문학/독해 문제가 작년에 비해 무려 3문제 증가하여 국가직 시험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문법/규범의 수가 크게 줄어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20년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에서도 비문학/독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수험 초기부터 문법/규범 이론 공부와 더불어 비문학/독해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독해 문제 자체의 난도는 중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문제 유형으로는 문법/규범의 경우 항상 출제되는 ‘띄어쓰기’와 ‘높임법’ 등 기존의 출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성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아침특강을 통해 기출 변형 문제로 꾸준히 문제풀이 훈련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비문학/독해의 경우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와 ‘추론하기’ 등이 출제되었으며, 지방직 7급의 경향대로 지문 길이가 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학은 현대 시, 고전문문 및 고전 산문이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어휘/한자는 쉬운 한자 성어와 조금 까다로운 한자 총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형태론, 의미론, 한글맞춤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으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문학의 경우 매일 2~3문제씩 풀고 각 문제에 인용된 작품에 대한 내용을 교재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계속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듯이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4.  
기미진 율립

##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http://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http://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stCC6g](http://youtu.be/0ORfstCC6g)

문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주가 취직이 되었대. ㉠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
- 지금 사는 ㉡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 재는 우리가 싫어했던 ㉢ 저것이 마음에 든대.
- 어르신, 제가 ㉣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국어의 9품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①

## [문제 해설]

- ① [O] ㉠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앞에 발화된 진술 ‘현주가 취직이 되었대’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② [X] ㉡ ‘그’는 뒤에 오는 ‘집’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입니다. 이때 ‘그’는 듣는 이에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X] ㉢ ‘저것’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이므로 화자와 청자 모두 아는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 ④ [X] ㉣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2. 다음을 고려한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목적: 복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한다.
-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쓰기의 과정

출제 빈도 || ★★★★★

정답 || ②

## [문제 해설]

- ① [O]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고서 작성 방안입니다.
- ② [X]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무관합니다.
- ③ [O]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고서 작성 방안입니다.
- ④ [O]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은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고서 작성 방안입니다.

문 4.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낚신 이의 집에서 숙식을  
㉠ 붙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근한 마음에 말을 ㉢ 붙여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 부치고 있을 뿐이었다.  
㉤ 붙여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 붙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① ㄱ, ㄷ, ㅅ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ㅅ

[문제 분석]

출제 영역 Ⅱ 발음이 비슷한 단어의 쓰임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 [X]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를 의미하는 ‘부치다’를 써야 합니다.  
다.  
㉡ [O]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를 의미하는 ‘부치다’가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 [O]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를 의미하는 ‘붙이다’가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다.  
㉣ [X] ‘맛당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를 의미하는 ‘붙다’의 사동사 ‘붙이다’를 써야 합니다.  
㉤ [X]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를 의미하는 ‘부치다’를 써야 합니다.  
㉥ [O]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를 의미하는 ‘붙다’의 사동사 ‘붙이다’가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 ㉢, ㉣, ㉥입니다.

### - 기특 플러스 ‘붙이다’와 ‘부치다’

<p>붙이다</p>	<p>①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 ‘붙다’의 사동사          예 · 봉투에 우표를 <u>붙인다</u>.          · 메모지를 벽에 덕지덕지 <u>붙인다</u>.</p> <p>② 딸리게 하다. 배속하다.          예 감시원을 <u>붙인다</u>. 가정교사를 <u>붙인다</u>. 흥미를 <u>붙인다</u>.</p> <p>③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가서다.          예 옆 사람에게 농담을 <u>붙였다</u>.</p> <p>④ 기대나 희망을 걸다.          예 한창 커 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u>붙이고</u> 사는 것이 큰 낙이다.</p> <p>⑤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 ‘붙다’의 사동사.          예 · 공부에 흥미를 <u>붙인다</u>.          · 새로 사귄 친구에게 정을 <u>붙이고</u> 나니 이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p>
<p>부치다</p>	<p>①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예 그 일은 이제 기력이 <u>부쳐</u> 할 수 없다.</p> <p>② 어떤 문제를 다른 곳에 넘기어 맡기다.          예 · 이 원고를 인쇄에 <u>부치기로</u> 하였다.          ·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u>부치다</u>.</p> <p>③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예 그는 아들에게 학비와 용돈을 <u>부쳤다</u>.</p> <p>④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예 <u>부쳐</u> 먹을 내 땅 한 평 없다.</p> <p>⑤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예 그들은 여행 계획을 비밀에 <u>부쳤다</u>.</p> <p>⑥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예 동생은 삼촌 집에 숙식을 <u>부치고</u> 있다.</p>

문 4.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

보살은 자기 자신이 불경의 체험 내용인 보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일체의 타인에게도 그의 진리를 체득시키고자 정진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함과 같은 자리(自利)를 위하여 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이타(利他)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나한이 개인적 자각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적 자각에 입각한 것이니, 나한은 언제든지 개인 본위이고 개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 본위이고 사회 중심주의인 것이다.

- ① 유추                      ② 묘사  
③ 예시                      ④ 대조

**[문제 분석]**

출제 영역 Ⅱ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유추'는 생소한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를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② [X] '묘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는 진술 방식을 말합니다.
- ③ [X] '예시'는 일반적인 원리, 법칙, 진술을 세부적인 예로 구체화하는 진술 방식을 말합니다.
- ④ [O] '대조'는 둘 이상의 것을 건주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어 진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보살'과 '나한'의 차이점을 들어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 - 기특 플러스 글의 서술 방식

1. 묘사  
대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는 진술 방식  
예 귀뚜라미의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 위에 포개져 거의 몸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 두 날개는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2. 분석  
어떤 복잡한 것(사물, 개념)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  
예 • 판소리는 창, 아니리, 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제는 시제 측과 여러 개의 톱니바퀴, 세 개의 침(초침, 분침, 시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설명  
주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서술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놓이는 서술 방식  
예 구비 문학(口碑文學)은 말로 된 문학이며, 글로 된 문학인 기록 문학과 구별된다.
4. 비교  
둘 이상의 것을 건주어 공통점에 주안점을 두어 진술하는 방식  
예 사스는 초기에는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 열이 38도 이상 오르고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숨가쁨 등 전형적인 호흡기 질환의 특징을 보인다.
5. 대조  
둘 이상의 것을 건주의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어 진술하는 방식  
예 • 연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영화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진달래와 철쭉은 봄에 피는 꽃들이다. (비교) 진달래는 먹을 수 있지만 철쭉은 못 먹는다. (대조)
6. 유추  
생소한 개념이나 복잡한 주제를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식  
예 인생은 마라톤이다. 누구나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사람만이 결승점에 도달하듯이 인생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7. 예시  
일반적인 원리, 법칙, 진술을 세부적인 예로 구체화하는 진술 방식  
예 세시 풍속은 생활의 악센트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설의 심기일전, 추석의 감사 등이 그 예이다.
8. 정의  
'A는 B이다' 형식으로 화제의 본질적인 개념을 규정. '무엇이나?'에 대한 해답의 방식  
예 문학이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언어로써 표현하는 예술이다.

문 5. 다음 글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옹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도덕적으로 옹정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 훼손은 물론,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①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 ③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제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 【문제 해설】

- ① [X] 지문 첫 부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를 통해 드러나 있지만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 글이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 ② [X] 2문단의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를 통해 공익을 위한 정보 유출이 있음이 드러나 있지만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는 이 글이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 ③ [X] 2문단의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정보 유출이 있음이 드러나 있지만,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글이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 ④ [O] 지문 마지막 부분의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를 통해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되고, 그 중간 부분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린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장식적 요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겸손의 건축’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 【문제 해설】

- ① [O] 1문단의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② [O] 1문단의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③ [O] 2문단의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④ [X] 2문단 마지막 부분의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 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① 肝膽相照                      ② 磨斧爲針  
③ 昏定晨省                      ④ 孤掌難鳴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肝膽相照(간 간, 쓸개 담, 서로 상, 비칠 조)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귄다’를 이르는 말입니다.  
② [X] 磨斧爲針(갈 마, 도끼 부, 만들 위, 바늘 침)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③ [O] 昏定晨省(어두울 혼, 정할 정, 새벽 신, 살필 성)은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효녀 지은’의 행위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한자 성어입니다.  
④ [X] 孤掌難鳴(외로울 고, 손바닥 장, 어려울 난, 울 명)은 ‘외손백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문 8.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장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② 어머님, 아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높임법의 종류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일반적으로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생활의 필수적 조건이 되는 사물, 개인적 소유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시-’를 써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개인적인 소유물은 간접 높임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로 쓴 것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② [O]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별’, ‘아비’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을 때에는 ‘그이’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지칭할 때는 높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로 ‘압존법’은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공대를 줄이는 어법으로 가정이나 사제 간에 사용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압존하지 않으므로 압존법이 사용된 문장은 아닙니다.  
③ [O]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시-’를 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④ [X] ‘웃어른에게 말씀 올린다.’는 의미의 ‘여쭙다’는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입니다. 이 문장에서 객체는 ‘저’이고 ‘저’는 말하는 이가 스스로를 낮추어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객체를 낮추는 말에 높임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문 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쯤’은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 내일쯤, 열마쯤)  
② [O] ‘-어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 한 톨어치, 천 원어치)  
③ [X] ‘남짓’은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스무 살 남짓’과 같이 써야 합니다. (㉢ 한 달 남짓, 열 명 남짓)  
④ [O] ‘-경’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 오전 9시경, 월말경)

문 1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네 가지 아즐가 네 가지 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넬 빅에 아즐가 넬 빅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대 가요 + 고려 가요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가)는 백수광부의 처의 <공무도하가>입니다.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노래하고 있으며, ‘물’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별,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작자 미상의 <서경별곡>이며,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 ① [X] (가)의 화자는 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② [X] (가)의 ‘河’은 임의 죽음을, (나)의 ‘강’은 임과 나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 ③ [O] (가)는 임의 죽음에 대해 염려하고, (나)는 배를 타고 화자를 떠나는 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④ [X]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회극적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 ※ 회극적(喜劇的): 희극의 요소를 가진.
- 희극(喜劇): 웃음을 주조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 있게 다룬 연극이나 극 형식. 인간 생활의 모순이나 사회의 불합리성을 골격적, 해학적,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현대어 풀이]

(가)  
公無渡河그대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물에 빠져 죽으시니  
當奈公何이제 그대 어찌하리.

(나)  
대동강이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놀란 줄도 모르고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 기특 플러스 작품 분석

- (가)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갈래: 고대 가요  
연대: 고대(고조선)  
주제: 임을 여윈 슬픔,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성격: 직서법으로 직정적(直情的)이고, 비극적  
특징: 배경 설화가 존재, 4언 4구체의 한역 시가  
어조: 여성적 화자의 탄식과 원망과 애절한 울부짖음과 체념적인 어조  
의의: ① ‘황조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정 가요  
②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의 과도기 작품

- (나) 작자 미상, <서경별곡>  
갈래: 고려 가요  
연대: 고려  
주제: 이별의 정한  
성격: 여성적, 직설적  
특징: 조선 성종 때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분류되어 검열당하기도 함  
제재: 임과의 이별

문 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 ~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쨌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랄 것이 못이여?

연 철: (비꼬는 투로) 놀랄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었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여?

곰 치: ( ㉠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 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 치: ( ㉡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 치: ( ㉢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댁: (떨쩍 뛰며) 왔따! 큰 말씀이시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 치: ( ㉣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에서 －

- ① ㉠: 체념 조로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③ ㉢: 지친 듯  
④ ㉣: 애걸 조로

[문제 분석]

출제 영역 Ⅱ 시나리오, 희곡의 이해

출제 빈도 Ⅱ ★★

정답 Ⅱ ③

[문제 해설]

천승세가 지은 희곡 <만선>입니다. 만선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우직한 한 어부의 집념과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비극적 현실과의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① [O] 어부 ‘곰치’는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므로 ‘임제순’의 말에 ‘체념 조’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O] 어부 ‘곰치’는 선주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기스런 안간힘을 쓰며 목소리를 높이는 ‘성삼’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아냥거리는 투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경질적으로’가 들어가야 합니다.

③ [X] 어부 ‘곰치’는 선주 ‘임제순’의 부름에 대해 ‘지친 듯’ 대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④ [O] 어부 ‘곰치’는 선주 ‘임제순’의 배를 묶겠다는 단호한 말에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이라고 ‘애걸 조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 12.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 ㉠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 ㉡ )가 컸다.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 ㉢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 ㉣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 ㉡  | ㉢  | ㉣  |
| ① 시행 | 격차 | 기반 | 고양 |
| ② 시행 | 편차 | 기반 | 지양 |
| ③ 중단 | 격차 | 방식 | 지양 |
| ④ 중단 | 편차 | 방식 | 고양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③ [O] ㉠에 들어갈 말의 근거는 지문 마지막 부분의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의 앞뒤 문맥을 보면,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떨어져 다른 정도.’를 의미하는 ‘격차’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편차’는 ‘수치, 위치, 방향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나 크기.’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에는 모스크바어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표준어 정책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에는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를 의미하는 ‘기반’이 적절합니다. ‘방식’은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 앞뒤 문맥을 보면,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높아지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을 의미하는 ‘고양’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양’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1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별 헤는 밤

㉡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

㉢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고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 ○○. ○○. -

<보 기>

신문 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여러 가지 유형의 글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① [X] ㉠ ‘별 헤는 밤’은 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윤동주 시인의 시 제목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하므로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X]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는 축제의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O] ‘육하원칙(六何原則)’이란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룹니다. ㉢ ‘11일과 12일 저녁(언제) 울산과 부산에서(어디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무엇을) 잇따라 펼쳐진다.’는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언제, 어디서, 무엇을)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 [X] ㉣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누가) 11일 오후 5시부터(언제)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어디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무엇을) 연다.’는 별 축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 【문제 해설】

- ① [O] 화자는 ‘온다’라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봄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② [O] 화자는 ‘온다’라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봄이 반드시 도래할 것(대상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③ [X] 화자는 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봄의 도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O] 이 시는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 — 기특 플러스 작품 분석

이성부, &lt;봄&gt;

연대: 1970년대

주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 자유와 평화의 새 시대를 기다리는 소망

성격: 예찬적, 희망적, 상징적

특징: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그려냄

② 간절한 기다림과 확신을 ‘온다’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드러냄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굵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시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 【문제 해설】

- ① [O] 1문단의 ‘어느 시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를 통해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② [O] 1문단 마지막의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를 통해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큼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X] 3문단 처음의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를 통해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제시된 글 마지막의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를 통해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 16. ㉠ ~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판해서 ㉢열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 | ㉠    | ㉡   | ㉢   | ㉣  |
|------|-----|-----|----|
| ① 殞命 | 自書傳 | 厭世的 | 成實 |
| ② 運命 | 自書傳 | 鹽稅的 | 成實 |
| ③ 殞命 | 自敍傳 | 鹽稅的 | 誠實 |
| ④ 運命 | 自敍傳 | 厭世的 | 誠實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한자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④ [O] ㉠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의미하는 ‘運命(운전할 운, 목숨 명)’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 殞命(죽을 운, 목숨 명)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에는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를 의미하는 ‘自敍傳(스스로 자, 줄 서, 전할 전)’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 自書傳(스스로 자, 글 서, 전할 전)

㉢에는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厭世的(싫을 염, 세대 세, 과녁 적)’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 鹽稅的(소금 염, 세금 세, 과녁 적)

㉣에는 ‘정성스럽고 참됨.’을 의미하는 ‘誠實(정성 성, 열매 실)’이 적절한 표기입니다.

※ 成實(이룰 성, 열매 실) 곡식 따위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음.

문 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들이 서로 이르기, “강 건넌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솔 세발술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길길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기록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誨)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애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먼전에서 아침을 떠나 누가 곧이들겠느냐?”

— 박지원, 「호질」에서 —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Ⅱ 고전 소설

출제 빈도 Ⅱ ★★★★★

정답 Ⅱ ①

## 【문제 해설】

제시된 글은 박지원의 <호절>로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이 주제인 작품입니다.

- ① [X] 제시된 글의 처음에 “강 건넌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셋별이 반짝이는 데 ~”와 같이 자연을 언급하는 부분은 있지만,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O] 제시된 글에서 북곽 선생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솔 세발술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의 시를 통해 남녀 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원앙새’ 등을 언급함으로써 동리자와 통정하고자 하는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③ [O]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평소 점잖은 유학자로 행세하던 북곽 선생이 호랑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는 모습을 통해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습니다.
- ④ [O] 제시된 글의 마지막에 ‘~ 내 듣건대 유(儒)는 유(謏)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를 통해 ‘儒(선비 유)’와 ‘謏(아침할 유)’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유학자인 북곽 선생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문 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Ⅱ 중의적인 문장

출제 빈도 Ⅱ ★★★★★

정답 Ⅱ ③

## 【문제 해설】

- ① [X] ‘투고(投稿)’는 ‘의뢰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냄. 또는 그 원고.’를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원고’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보낸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와 같이 고쳐 써야 옳습니다.
- ② [X] ‘도보(徒步)’는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을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걸었다’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었다.’와 같이 고쳐 써야 옳습니다.
- ③ [O] 의미의 중복이 없는 문장입니다.
- ④ [X] ‘자매결연((姊妹結緣)’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일.’을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맺은’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한 분들이다.’와 같이 고쳐 써야 옳습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Ⅱ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Ⅱ ★★★★★

정답 Ⅱ ④

## 【문제 해설】

- ① [X] 제시된 글의 첫 부분에서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들은 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X] 제시된 글의 마지막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X] 제시된 글의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통해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제시된 글의 중간 부분에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를 통해 안중근 의사가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 [문제 해설]

- ① [X] 제시된 글의 첫 부분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를 통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이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제시된 글의 첫 부분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와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를 통해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변수: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 ③ [O] 제시된 글의 중간 부분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제시된 글의 마지막에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를 통해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이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